

갑작스런 폐강소식 알고보니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우리학교 교원이 면직 의사를 표명하는 시기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생산경영론 ▲물류관리 ▲의사결정론 폐강이 공지됐다. 산업경영공학과 송병덕 교수가 지난 1학기를 마지막으로 우리학교를 떠나서다. 이중 생산경영론과 물류관리는 송 교수가 담당할 예정이었다. 전현우 교수(산업경영공학과)의 의사결정론은 2개 분반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송 교수의 이직으로 폐강된 생산경영론을 전 교수가 맡게 되며 분반 하나가 폐강됐다.

문제는 학생들에게 폐강이 통보된 시기였다. 송 교수의 이직과 3개 강의의 폐강이 4학년 수강신청 전날인 지난달 7일 오후에 통보된 것이다. 같은 날 산업경영공학과 학생회는 학과 단체 채팅방과 학생회 SNS를 통해 수업이 폐강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학생회와 행정실, 교수진의 소통으로 대학원 강의 수강을 허용하는 등 피해 학생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유관부서의 사후 대처로 갑작스럽게 통보된 폐강을 수습했다. 그러나 면직에 대

2023-2학기 산업경영공학과 강좌 폐강 및 변동 사항 안내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학생회 NN입니다.
수강신청 하루 전, 공과대학 행정실과 교수님들의 연락을 받아
긴급히 강좌 폐강 및 변동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강좌의 수강을 희망하셨던 학우님들께서는 반드시 공지사항을 잘 읽고
수강신청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의사결정론>	4학년	월/수	9:00~10:15
<생산경영론>	2학년	화/목	15:00~16:15
<물류관리>	3학년	월/수	13:30~14:45

본 강좌들을 희망과목담기 목록에 넣어놓으신 학우님들은,
수강신청 시 해당 과목을 배제하시고 신청을 진행해주시고,
해당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각 과목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뒷 장을 참조해주세요.

담당 교수의 이직으로 수강신청 전날 산업경영공학과 강의 3개가 폐강됐다.

(사진=산업경영공학과 학생회 SNS)

한 규정에는 근본적인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갑작스러운 폐강처럼 면직 의사를 표명하는 시기가 학생의 수업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학교는 교원이 조직을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행위를 의원면직이라고 칭한다.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학교 교수가 다른 학교로 이직하는 경우나 일신상의 이유로 퇴임하는 것은 모두 의원면직의 사례 중 하나다.

우리학교 교원의 의원면직 시기와 관련한 규정은 규정관리시스템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서울캠퍼스 교무처 교무팀은 “의원면직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의원면직 절차 중 제한 사유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

으나 교원이 형사상의 문제에 연루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고 설명했다. 강의의 존속 여부는 사실상 전적으로 강의를 담당하고자 하는 교수의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2학기 예술디자인대학(예디대)에서는 학기 중 휴직을 선언한 교수도 있었다. 시각디자인학과 4개 강의를 담당하던 김형석 교수는 학기 중 갑작스럽게 휴직을 선언한 후 잠적했다. (관련 기사: 예디대 교수 잠적 논란 일어/대학주보 제1693호 (2022.11.21)) 당시 예디대 행정실 측은 김 교수의 휴직 사유에 대해 “개인 사정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예디대 측은 남은 학기를 담당할 교강사를 급하게 구해 김 교수가 담당하던 강의를 끝마쳤으나 수강생

사이에서는 혼란이 일었다. 의원면직으로 인해 수업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실질적으로 제지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교원 이직 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 행정실 직원 A 씨는 “직업 선택 및 이직의 자유는 교수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번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역시 8월 31일까지는 공식적으로 우리학교에 소속된 교수다”며 “개강일 전날에 통보했어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교무팀 직원은 “의원면직은 학기 말에 많다”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교수 역시 채용 공고가 나는 시기에 맞춰 이직을 준비해야 해서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논술전형 학생부 평가 폐지

고도희 기자 kdhistory@khu.ac.kr

2024학년도부터 우리학교 논술우수자 전형의 평가 비율이 논술고사 성적 100%로 변경된다.

이전까지 논술우수자 전형의 평가 비율은 ‘논술 70+학생부 30’으로 유지돼 왔다. 수능 최저 기준은 ▲인문·자연계열 2개 영역 등급 합 5(탐구 1과목) ▲의·치·한·약학과 3개 영역 등급 합 4(탐구 1과목)로 이전과 동일하다. 체육계열은 국어, 영어 중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모든 계열은 한국사 5등급 이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화여자대학교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2024학년도 입시에서 평가 비율을 이전 ‘논술 70+학생부 30’에서 ‘논술 100’으로 변경했다.

대학의 논술전형 비율 변경 이유에는 ▲대입 전형 간소화로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비교과 항목과 자기소개서 폐지 ▲고교학점제 실시에 따른 선택과목 절대 평가제로 내신 변별력 저하 등이 있다.

입학처는 “수험생 부담 완화의 취지로 학생부 반영을 폐지하고 전형 방법을 간소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학생부 반영 비율이 없어지면서 논술전형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기출 문제 중심으로 철저한 유형 분석 및 준비가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국제) 2023 NEW 배분이수 공모 안내

국제 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교양교육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배분이수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최** 경희대학교 국제C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 HIKHU(하이쿠)
- 공모내용**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배분이수 교과목(주제)
- 참가대상** 경희대학교 국제C 재학생 (최대 2인 한 팀)
- 접수기간** 2023. 9. 1~9. 13
- 제출서류** 신청서 (기획안 + 포스터)
신청서양식, 예시 참고! (HIKHU 인스타그램 하단 링크트리 ▶ 구글 드라이브)
- 제출방식** HIKHU 인스타그램 링크트리 ▶ 구글폼으로 제출
* HIKHU(하이쿠) 인스타 : @hi_khu
* HIKHU(하이쿠) 링크트리 : <https://linktr.ee/hikhu>

- 시상 내역** 상금 : 1등(1팀) : 20만원
2등(1팀) : 15만원
3등(1팀) : 10만원
장려상(3팀) : 배달의 민족 2만원권
*상금은 참여 인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 기준**
① 교양 교육적 가치 실현 및 학문적 성취 실현(30점)
 - 교양 교육의 가치 실현 여부
 - 교육 내용의 학문적 성취 여부
 - 교육 내용의 응용성 및 확장성

- ② 교과목 운영 실현 가능성 (40점)**
 - 교과목 운영에 따른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 가능성
 - 교수-학습 공간 활용 가능성
 - 교육 내용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 가능성
- ③ 교육목의 체계성과 창의 융합성(30점)**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교과목의 창의 융합성
 - 교육 과정의 체계성

경희대학교 국제C 후마니타스칼리지